

## 협회 CFO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3일 회원사 CFO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를 위한 'CFO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CFO는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로 기업 활동에 있어 직접 금융의 필요성이 커지고, 원활한 자금흐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고경영자(CEO)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벤처기업 역시 이들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CFO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작년 12월에 KOVA 회원사 CFO를 위한 커뮤니티 결성(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운영위원 추천과 5월 운영위원 간담회를 거쳐 6월 12일 'KOVA CFO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는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미디어피아 김승렬 상무가 맡아 진행하며, 운영규정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위원으로는 로커스의 송지호 상무이사, 비트컴퓨터의 구경환 이사, 핸디소프트의 박영교 상무, 이지디지털의 김세래 부장과 바이오니아의 박재환 전무이사 등이 맡고 있다.

이후 2차 CFO네트워크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플래너스 이주현 상무, 마크로젠 황동진 이사 등이 추가 선임됐으며, 재무, 회계 등 관심분야를 세분화하여 7개 분과운영 및 각 운영위원들이 분과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번 3차 'KOVA CFO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위원회는 넥스커뮤니티 장인형 이사의 추가 선임 건을 처리하고 2차 CFO네트워크 결과에 대하여 보고했다. 2차 CFO네트워크 결과보고에서 CFO네트워크의 성격을 KOVA CFO의 자발적인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12월 KOVA 웹사이트의 개편을 토대로 회원사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소규모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추진하며, 오프라인 상으로는 의견 및 현안에 대한 방안



▲ CFO네트워크 운영위원 간담회

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CFO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에 필요한 실증적이고 사례 중심의 토론의 장을 열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CFO 네트워크의 분과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모임시 분과별 회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CFO네트워크의 각 분과는 IPO부문(김승렬 위원장), IR부문(박영교 위원), Stock Option/우리사주 부문, M&A부문(송지호 위원), Tax 및 회계기준 부문(장인형 위원), 펀딩·외자유치 등의 자금조달 부문(구경환 위원), ERP/Groupware 부문(박재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KOVA CFO네트워크 총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한달 전에 개최한다. 'KOVA CFO네트워크 제3차 정기총회'는 12월 1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0층 주피터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회 참가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통해 접수받는다.

문의 : 국내사업팀 박소영(02-6009-4100)